

자원봉사자들 손님맞이 완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000여 명 자원봉사자들 중 432명 무주민들

지난 24일 막을 올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알차게 마무리되고 있다.

대회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도 함께 바빠지고 있는데, 무주군에 따르면 대회 기간에 활동을 하는 1,000여 명의 전체 자원봉사자들 중 432명이 무주군 주민들이다.

이들은 무주군과 대회 상장을 새긴 하얀색 도복 티셔츠를 입고 태권도원 T1경기장 앞 7개의 간식먹거리 부스와 경기장 옆 글로벌 푸드 라운지,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마을로 가는 축제 홍보 부스, 전망대 모노레일, 경기장 주변, 반딧불이와 실천면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권도원에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주군 실버태권도시범단원들로 태권도인이라는 자부심과 애함심으로 날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거리를 깨끗이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간식 먹거리부스 뜨거운 불 옆에서 상기된 얼굴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주민들은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허기를 달래고 관람객들도 쉬어가려고 정말 많이들 오신다"며 "요리감수도 받아가면서 준비했던 일인데 재료가 동이 나는 부스들도 생길만큼 많이들 찾아주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고 보람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낮에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무주군에 따르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에 활동을 하는 1,000여 명의 전체 자원봉사자들 중 432명이 무주군 주민들이다.

반딧불이 생태관에는 무주군청 반딧불이 전문가들 외에도 무주국제화교육센터에서 파견된 내외국인 강사들이 하루 2명씩 나와 방문객들의 관람을 돕고 있다. 개막당일에만 1,200여명의 관람객들이 들어갔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이곳에는 연일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에서 외국인 안내를 맡은 안소니 리진(국제화교육센터 영어강사, 30세, 미국 버지니아)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명성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대한 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돼 영광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무주군민들은 대회 기간 중 열린 락페스티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행을 도왔으며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는 선수단과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 버스터미널에서 외국어 안내를 하는 등 날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대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이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경기가 열리는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선수촌이 마련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각 마을 등 무주군 곳곳에는 연일 1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반딧불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열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주반딧불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무주장날인 26일 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 상인연합회가 주최, JTV 전주방송이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후원했다.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 박용식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무주반딧불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기념식과 군민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진행된 군민 노래자랑 본선 무대에는 12명의 주민들이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가수 현숙 씨와 진시몬, 하태웅, 문길현, 정연순 씨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전라북도

의회 백경태 도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황정수 군수는 "장날마다 봄비는 장터, 토요일마다 흥과 정으로 넘치는 토요일이 무주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오늘 시장가요제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에 진행돼 의미가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에도 대회 성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반딧불시장(장날 1일, 6일) 활성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밤 반딧불 야시장을 열어 다양한 이벤트와 청정 농·특산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상인교육, 그리고 품질과 가격, 맛과 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농·특산물 판매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세계태권도대회서 장수 관광 홍보

장수군이 지난 24일 개막한 '2017년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찾아 장수군 관광명소 알리기에 나섰다.

장수군은 '2017년 전북방문의 해' 및 '2017년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6.24.~6.30.)'를 기념하여 무주 태권도공원 일원에서 도, 13개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마케팅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장수군은 의암공원과 장수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11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비롯한 관광명소, 사과와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이번 홍보행사는 대회폐막일인 30일까지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독거노인 특별 사례관리

초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함에 따라 진안군은 독거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대상자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에 나섰다.

진안군은 26일 70개 마을의 독거노인 838명과 그 외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모정상담을 실시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직접 방문과 안부전화를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허브와 사업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2명에게 1,5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농협, 행복이음패키지 행사

농협무주군지부는 26일 무주농협에서 황정수 무주군수와 광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이정환 무주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에게 급리우대 혜택을 주는 농협 행복이음패키지 상품 가입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황정수 군수는 행복이음패키지 상품에 무주군 1호로 가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진안군-안호영 국회의원, 전략적 협력 정책간담회 개최

진안군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진안, 완주, 무주, 장수) 국회의원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호 진안군수와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명석 진안군의회 의장, 김현철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각 협의회장 및 여성회장과

부군수 외 각 실과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군정방향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대신공약의 국정과제화 및 지역발전을 이룰 2018년도 주요 국비사업(16건) 등 확보를 위한 협력과 사안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각 읍면 대표로 참석한 당 협의회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지역대선 공약사업), ▲마이산 氣품은 명품산후조리센터 조성 ▲진안고원 명품삼집적화 단지 조성 ▲진안고원 6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노후상·하수관로 정비사업, ▲급경사지 및 하천 등 재해예방 사업, ▲진안군 인공습지(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용담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최고 품질 '목이버섯' 생산

진안군은 밤낮의 기온차가 큰 기후적 특성으로 버섯의 품질이 우수한 버섯재배 최적의 기후를 가지고 있어 진안에서 생산된 목이버섯은 평야지보다 버섯이 도톰하고 좋기하면서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목이버섯은 봄과 가을 연 2회 재배가 가능하며, 6월 초부터 수확 작업이 한창으로, 종류는 흑목이와 백목이가 있는데 모두 비타민D와 칼슘, 콜라겐이 매우 많은 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진안군의 버섯마루에서는 국내산 참나무를 바탕으로 목이버섯 배지를 만들어 전라남도, 경기도 등 전국의 50여 목이버섯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육성품종인 '현유'를 통상 실시하여 국내산 육성 품종



을 생산하고 있다. 버섯산업은 병재배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업형 농가로 전환되어 소규모 농가가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이버섯은 분지 재배가 가능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연간 2회 재배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도 가득합니다.



방화동계곡



송마세험장
와룡자연휴양림 물별매장



장수물 검색



장수군